

“고혈압 등 보험 사각상품 개발... ‘퍼플오션’ 만들 것”

(레드+블루오션)

성대규 보험개발원장 간담회

학계·전문기관과의 협업 확대 연내 IFRS17 통합 시스템 구축

성대규 보험개발원장은 1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지원하겠다”며 “그간 통계와 분석능력 부족으로 개발되지 못했던 보험상품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업계에 ‘퍼플오션’을 만들어 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퍼플오션은 치열한 경쟁 시장인 ‘레드오션’과 경쟁자가 없는 시장인 ‘블루오션’을 조합한 말이다. 기존의 레드오션에



성대규 보험개발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2018년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발언을 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가치의 시장을 만드는 경영전략을 퍼플오션 전략이라 일컫는다.

성 원장은 또 “학계나 전문기관과의 협

업을 확대하고 빅데이터를 이용해 보험 대상의 위험도를 제대로 파악해 보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며 “일반손해보험 활성화를 지속 추진해 퍼플오션이 확

고히 정착하고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개발원은 현재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대와 함께 고혈압 합병증 모델(2018년)과 간질환 및 심장질환 예측 모델(2019년) 등 개발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 같은 전문 예측 모델이 개발되면 유병자가 가입할 수 있는 특화상품 출시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생한 지진 피해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 관련 평가 모델도 개발에 나선다. 향후 농민들을 위한 농작물 보험이나 주택 및 상업시설을 위한 거대 재해보험 개발에도 평가 모델을 활용할 계획이다.

연내에는 새 보험회계기준 IFRS17 통합 시스템(ARK) 구축도 마무리한다. 오는 2021년 시행될 IFRS17에 대비하기 위해 개발원은 지난 2015년부터 10개 보험사와 공동으로 시스템을 개발해왔다. 보

험부채평가뿐 아니라 회계결산까지 가능한 ARK시스템 개발을 올 상반기 중 완료하고 테스트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보험사에 이를 차적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 외 일반손해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의 사망·상해·질병·타인에 대한 배상책임 등 다양한 참조손해보험요율을 마련하여 손해보험사가 보험료 산정에 참고토록 할 계획이다. 업체별 위험관리 수준 평가가 어렵고 대형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어 상품 판매가 부진했던 사이버보험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업체 등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사이버위험을 평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성 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일반손해보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기반 마련에 나설 것”이라며 “IFRS17 구축도 전력을 다해 하반기부터 순차적 이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봉준기자 bj35sea@metroseoul.co.kr

NH농협금융, 베트남 등 동남아 진출 물꼬

아그리뱅크와 무계좌 송금서비스 실무TF 구성해 협력 구체화 하기로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23일부터 김용환 회장이 글로벌사업모델 구현 등을 위해 일주일 일정으로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를 방문했다고 1일 밝혔다.

김 회장은 이번 출장에서 취임 이후 추진해 온 동남아지역 사업 거점을 둘러보고, 현지의 정부당국 및 재계 그룹들과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다양한 사업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베트남에서는 현지 최대 국영은행인 아그리뱅크(Agri Bank)와의 무계좌 송금서비스 기념행사에 참석했으며, 농협은행과 Agri Bank는 30일 본 서비스를 개시했다.

김 회장은 쯘 응옥 칸 회장 등 Agri Bank 그룹 경영진과 별도 면담을 하고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 자회사들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조만간 양 그룹은 실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보험, 증권, 리스 등 전자회사를 대상으로 인력연수, 사업 제휴, 지원투자 등 협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농협금융지주 본사. /농협금융지주

또 김용환 회장은 베트남 증권위원회 판 반 황 부위원장을 만나 향후 NH투자증권 현지법인 등을 통해 베트남 증권위원회 프로젝트에 적극 지원 및 협력을 제공하기로 했다.

미얀마에서는 현지 재계 최대그룹인 HTOO그룹과 농기계 할부금융, 종자사업 등 다각적 사업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그룹은 먼저 HTOO그룹 계열사인 AGD뱅크와 농협은행 현지법인인 농협파이낸스 미얀마가 공동으로 농기계 할부금융 서비스를 현지에서 제공

키로 했다. 농협금융은 국내 농기계 수출 지원을 위해 한국 농기계회사를 본 협력 사업과 연계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농협금융은 농협경제지주 자회사인 농우바이오의 현지법인과 HTOO 그룹간 종자사업 협력을 추진했다. 농우바이오가 개발한 당근 종자를 HTOO 관련사와 현지 관계당국이 테스트 예정이며, 마무리 되는대로 HTOO그룹의 판매망을 통해 미얀마 현지 제공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수출키로 했다. 양사는 초기 협력을 기반으로 점차적으로 유지, 곡물, 기타 채소 등으로 종자사업 협력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농협금융이 현지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캄보디아에서는 이우 푹 우정통신부장관을 만나 우체국과 연계한 다각적인 금융사업 협력을 논의했다.

김 회장과 트람 이우 푹 장관은 캄보디아 정부의 5개년 경제개발계획(2018~2022)과 연계해 농협금융과 우체국의 금융협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우정통신부에서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농협금융에서는 사업모델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이동빈 수협은행장(가운데)이 1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리테일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일간 전 영업점을 돌며 현장경영을 했다. /Sh수협은행

“올 ‘중견은행’ 성장... 시장 선도할 것”

이동빈 수협은행장 취임 100일 전국 126개 영업점 ‘현장경영’

이동빈 수협은행장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는 올해 목표인 ‘리테일 금융 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전 영업점을 돌며 100일간의 현장경영을 마쳤다.

Sh수협은행은 이동빈 행장이 취임 후 전국 126개 전 영업점을 방문해 직원, 고객을 만나는 ‘현장경영 100일 대장정’을 실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행장은 지난해 10월 25일 취임 일성으로 ‘리테일 금융 경쟁력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올 한 해는 Sh수협은행이

가진 자산과 역량을 십분 활용해 내실 있고 알찬 중견 은행으로 도약하고 나아가 중견 은행 중에서도 시장을 선도하는 일등 은행으로 거듭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전 영업점을 방문했다. 리테일 금융의 핵심인 고객기반 증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업 현장의 고객접점 서비스를 직접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현장 고객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지난 13일에는 ‘중견 은행 일등 은행’이라는 수협은행의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하는 비전 선포식을 갖고, 올해 경영목표를 직접 프리젠테이션하기도 했다.

/채신화 기자

“금연·다이어트 하고 보험료 할인 받으세요”

금융꿀팁 200선

건강개선 서류 제출면 최대 20% 납부 힘들 경우 ‘감액제도’ 활용

#. 작년부터 건강관리에 신경 쓴 A씨는 담배를 끊고 꾸준히 운동을 해 왔다. 그 결과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체중도 많이 줄어 건강검진 결과를 보험사에 제출했더니,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었다.

건강제 할인특약을 이용하면, 건강 상태가 나아지면 최대 20%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 납부가 벅하다면 ‘감액·완납제도’를 통해 계약 유지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꿀팁 200선 -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 계약 관리 노하우’를 소개했다.

일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 가입 시보다 나아지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제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금연, 운동 등을 통해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나아지면 질병 등 보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특약 가입 후 건강상태가 개선된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과거에 낸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최대 20%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혈압이나 흡연 여부 외 피보험자의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보험료 할인, 건강관리기기 구매비용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보험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가입자도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채신화 기자

변액보험은 장기계약인 만큼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펀드 변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금융원은 조언했다.

가령 증시가 호황일 때는 주식형펀드에 중점 투자하고 침체기에는 채권형 펀드로 변경하는 식이다. 기존 펀드를 유지하면서 보험료 추가 납입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펀드의 비중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변액보험의 적립금, 펀드현황 등은 보험사에 매 분기 제공하는 보험계약관리내용,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 납부가 힘들 경우엔 보험료 ‘감액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감액제도는 보험계약은 유지하면서 보험금(보장내용)과 함께 보험료를 줄이는 제도다.

KB국민은행 ‘리브톡톡’ 업그레이드

KB국민은행은 1일 메신저 기반의 차세대 banking 플랫폼 ‘리브톡톡(Liiv Talk Talk)’의 서비스를 강화한 버전을 오픈했다.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금융비서 역할을 하는 ‘톡톡이’는 입출금 계좌, 카드 내역에 더해 개인이 보유한 펀드의 계좌 정보 및 수익률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아울러 대출 거래내역 및 적용금리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 메신저 성능 향상에 초점을 맞춰, 앱 구동 속도와 전송 속도, 단체 대화방 메시지 처리 기능 향상에 주력했다. 사내 메신저의 커뮤니케이션 기능 강화를 위해 한 번에 300명의 친구에게 보낼 수 있는 ‘폭지’ 기능과 일정을 공유하거나 상대방이 폭지를 열람했는지 확인할 수 있

는 기능도 추가했다.

리브톡톡은 메신저 창에서 채팅을 통해 친구나 가족과 대화하고 톡톡이라는 금융비서와 대화하듯이 은행거래를 하는 한편, 목소리 인증과 음성인식 기능을 통해 금융거래가 가능한 대화형 banking 앱이다.

상대방의 대화채널을 깨우는 노크(Knock), 똑똑한(Wise) 금융도우미, 대화형 서비스(Talk)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리브톡톡은 메신저라는 정체성에 맞게 앱 구동 속도, 메시지 처리, 자료 공유 등의 기본 성능 개선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챗봇 등 차세대 기술과 연계하여 다양한 업무 확장이 가능한 대화형 banking 플랫폼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